



5면

"선거브로커 의혹 해소 위해 녹취록 공개할"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음 3월 14일) 제29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3일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서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최병암 산림청장,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공식이 열렸다.

## 국립 산림복지단지, 진안에 조성

지덕권산림치유원 기공식... 2013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채택 후 10년 만에 '결실'

전북도 "성수산·마이산 연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힐링 여행환경 조성 노력"

전북도 동부권 산림치유의 메카로 기대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드디어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 일원에 첫 삽을 떴다. 도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공식을 13일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림치유에 대한 다변화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과 다양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이자 상징적인 시설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최병암 산림청장, 정운천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13년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채택된 후 10년 만에 얻은 결과여서 더욱 뜻 깊은 행사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

성 심사 통과후 바로 조성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난 2015년 당초 국가사업계획에서 지방자치사업 변경 추진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무려 300회가 넘게 전국을 다니며,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2018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비 확보, 연계사업 발굴 등 동부권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개원에 맞춰 치유원 활성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 진안고원 산골 음식 상품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주민 교육비 지원 등 치유원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이 자연치유 분야의 인력양성 및 치유산업 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선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원과 함께 운영·관리를 위한 많은 전문 인력이 지역에 유입되고, 산림치유원 운영이 활성화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원 617ha 사업부지에 총사업비 844억원을 투입해 힐링과 교육, 체험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시설 지구를 선정해 접근성 및 이용행태를 고려, 건축·조경시설 등 주요시설을 집약배치했다. 기공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치유원 기공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치유원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안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이 시기에 산림에서 치유원 기능을 다스릴 수 있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전북도에 조성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북도는 치유원과 성수산, 마이산을 연계하는 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힐링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진안=유대만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당선인 공약 국정과제 반영 총력

전북도 지휘부 관계자들, 복지부·해수부 찾아 건의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당선인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도 지휘부 관계자들이 복지부와 해수부를 방문,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 클러스터 조성 세부사업의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복지부에는 바이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조성을 역설하며,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구축된 수도·중부권(충북 오송/바이오산약), 영남권(대구·경북/합성신약)에 이어, 호남권(전북 정읍/천연물 신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바이오헬스 산각벨트를 완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를 찾아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신규사업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내해가 해양 무인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전북의 사업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양 무인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공인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해양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해양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함을 피력했다. 또한 환경부를 찾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 등 국가예산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도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연말 예타 통과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축사 매입(50km)과 생태복원(50km) 예산반영도 협조 요청했다. 이외에도 해수부에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의 국가어항 개발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고창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마지막까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휘부 릴레이 방문 활동을 이어가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내 9곳 새로 선정

김제 꽃다비팜·익산 연화산방 등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최종 공모에서 9개의 사회적 농장이 새롭게 선정돼 총 18개소로 전국 최다 운영 지자체가 됐다. 이번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김제시 농업회사법인 꽃다비팜,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연화산방·농촌마을연구소 ▲남원시 농업회사법인(주)레드,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 ▲무주군 농업회사법인(주)호호파우즈·농업회사법인(주)퍼머스에프앤에스, ▲부안군 농업회사법인(주)미래농원 등 총 9개소이다. 특히, '지역 거점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 익산 시농촌마을연구소는 지역의 사회적 농업을 확대시키고,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미래농업은 스마트팜처럼 기술농업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동체 가치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또한 미래농업의 한 축으로 봐야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도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을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